



## 여성의 연대·소통 더 큰 전북으로 도약

전북여성신년하례회  
‘평등·동행·연대’ 내걸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센터 대강당에서 전북 여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18 전북여성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 여성의 역량을 결집, 여성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더 큰 전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평등·동행·연대' 슬로건으로 더욱더 합심하고 단결하여 새 희망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김중희 국회의원과 전북도

의회 의원, 시·군의원, 유관기관장,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여성과 여성의 상생인 황금기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소중히 지키고 걱정과 근심은 멀리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올 한 해를 전북의 대도약이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지난 1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상품들 프랑스 디자인 전시회에 출품

전통문화전당, 19일부터 5일간  
2018 춘계 메종&오브제에  
문체부와 공동으로 40여점 소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18 춘계 메종 & 오브제'에 출품되는 전통문화전당 융복합 상품들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상품들이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에서 출품돼 그 예술성과 독창성을 뽐낸다. 한국전통문화전당(임장 오태수)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18 춘계 메종 & 오브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과 무형문화재 제품 등 총 40여점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우(遭遇-Merg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의 시간을 아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는 전통적인 기법이 담긴 장인들의 기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의 탐구 정신이 복합됐다. 전시 상품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전통문화 창조센터에서 매년 실행하는 지역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명품 육성사업의 결과물 24점과 전통문화융복합 상품 상용화 지원 사업의 우수상품 7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전주시 지정 지방무형문화재 제품 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되는 주요 상품으로는 유기의 물성에 따라 유·무광을 달리 적용해 다른 느낌을 얻

출하여 심미성을 극대화한 김주인 디자이너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김수영 유기장의 협업 작품인 '과일트레이-나눔'을 비롯해 기와의 선을 차용한 박재우 디자이너와 권원덕 작가의 '美瓦(미와) V미니바', 쉽게 끊을 수 없는 대나무의 물성을 이용한 정소이 디자이너와 장성원 작가가 만든 '인연(因緣)' 대나무 플랜터, 스톨 시리즈 등이 있다. 더불어 상용화지원사업 우수 상품으로 전통 옷돌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웃'과 비스듬한 형태의 도자기 술잔으로 여러 개를 위로 쌓아 올렸을 때 또 다른 오브제를 만들어 내는 'Balanced'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 상품은 지난해 12월 '2017 서울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전시작으로 선보이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동안 전당은 '전통문화 융복합 지원 발굴 사업'의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대형 박람회 2회와 수차례의 크고 작은 국내 전시회를 해왔지만 국외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엔 참가하게 되는 메종&오브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 전시회로 전 세계 60개국, 관람객 8만여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오태수 원장은 "우리 문화를 담은 상품이 국내에 이어 국외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인지 기대된다"며 "한국의 전통문화 자원과 상품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17일 마당 수요포럼 강헌 음악평론가 초청

(사)마당은 17일 수요포럼에 대중음악평론가 강헌을 초청, 한국대중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한국사회를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평론가 강헌은 '한국대중문화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대중문화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평론을 펼칠 예정이다. 재즈와 로큰롤에서부터 바로크 시대와 고전파를 거쳐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는 클래식 역사의 음악가들의 생애와 예술세계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또한 윤삼덕의 '사의찬미'로 시작, 세계 속에서 한류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방대한 지식을 음악·문화예술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민족 등 다양한 매커니즘 속에서 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사례와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강헌은 1962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음악대학원을 졸업했다. 1980년대 음악집단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영화집단 '장산꽃매'의 중심으로 한국 대중영



화와 음악의 초창기를 이끌었다. 1991년 평론 '김현식론:통기타에서 블루노트까지'를 발표하며 음악평론가로 정식 데뷔한 이래 26년 넘게 신문과 방송 등 주요 매체에 음악비평을 연재하고 있다. SBS 라디오 '황교익 강헌의 맛있는 라디오' 진행하기도 했던 그는 현재 팟캐스트 '걸신이라 불려다오', '강헌의 좌파명리',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북과 반전의 순간', '강헌의 한국 대중문화사' 등이 있다. 포럼은 17일 오후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공간 북에서 열린다. 참가비 1만원. /정해은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자료실 개방형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전북도민의 전문 도서 열람 기대에 부응하고자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료실을 개방형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 자료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방된다. 고고학·미술사학·박물관학 관련 도록, 보고서, 단행본 등의 전문서적 3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 자료실은 그동안 폐가식으로 운영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

다. 또한 사전에 열람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했다. 박물관은 이번 자료실 개방과 함께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도 새롭게 비치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자료실 개방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대학생과 전공자들이 박물관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역사·문화에 대한 어린이 도서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2017 겨울방학 특별기획 곤충아트 특별전

http://www.namwon.go.kr

- 일 시 : 2017. 12. 23(토) ~ 2018. 1. 21(일)
- 장 소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5시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찾아오시는길 문의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063-620-5751~4

### 겨울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무료체험프로그램

종이랑 나무랑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화-금)  
다종이인형만들기  
클레이솜대만들기

하나뿐인 반려식물  
운영시간 : 오후 1시 30분 (화-금)  
다육이화분꾸미기  
마리모수조꾸미기

유료체험프로그램

자개겨울만들기  
운영시간 : 오전 11시30분 (토, 일)

곤충표본만들기  
운영시간 : 오후 1시30분 (토, 일)  
선착순 30명(50분전 현장접수)

주최·주관 : 남원시

후원 : 산림청